

일상 아카이브의 발견 (명지대학교 인간과기록연구단 편)

권 용 찬*

1. 들어가며

2012년 기록학계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본다. 이 책은 명지대학교 인간과기록연구단의 첫 번째 총서로 발간된 “일상 아카이브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일상을 대상을 하는 연구가 아닌 일상에 참여하는 연구를 위하여 엮은 책이다.

일상이란 ‘사소하고 반복되는’ “진부하기 짝이 없는 다양한 행위들로 이루어진 세계”를 말한다.¹⁾ 앞서 이야기한 말처럼 우리는 사소하고 반복적인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저 그런 우리의 일상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인간(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상을 발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발간되었다. 일상의 새로운 발견은 단순하게 들여다보기가 아닌 나 스스로가 느끼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발견되고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으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1) 김왕배, 「일상생활의 철학적 의미와 생활정치」,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엮음, 『세계화 시대 일상공간과 생활정치』, 도서출판 대운, 1994, 41쪽.

며 아카이빙을 통해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일상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2012년도 1학기 대학원 수업²⁾을 수강한 나지만 일상과 일상 아카이브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가 부족하여 이 서평을 읽는 선, 후배 선생님들께 미안한 마음을 먼저 표시하며 글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2. 책의 구성과 내용

이 책은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일상 아카이브와 공동체’, 2부 ‘도큐멘테이션 전략과 일상 시공간의 기록화’, 3부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다양성’이다.

먼저 1부 ‘일상 아카이브와 공동체’에서는 5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곽건홍 선생님의 「일상 아카이브로의 패러다임 변환」에서는 그간의 공공영역 위주의 기록관리의 관심과 노력을 민간영역으로 특히 ‘보통사람’들의 영역으로 전환하고자 이야기 한다. 또한 김일도 선생님은 기록이라는 매체가 권력을 가진 소위 권력자의 전유물에서 보통사람의 권력에 저항하고 견제하는 매체로써 활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기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소고」의 글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일상의 발견을 통해 저항하고 권력에 견제하는 것은 일상을 공유하는 구성원간의 공동체 구성을 가능하게하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마을단위의 아카이빙을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김익한 선생님의 「마을 아카이빙 시론」에서는 마을이야말로 일상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공동체적 삶의 말단 현장이며 동시에 시민사회의 기반 구조를 공

2) 2012년 1학기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으로 진행된 ‘생활세계와 일상아카이브’ 강의.

고히 해가기 위한 민주주의의 말단 현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활동가로써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상을 통한 공동체의 아카이브를 구체화하는 방안과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이영남 선생님의 「공동체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은 아카이브와 공동체가 연결되는 새로운 관점과 아카이브 방법론, 글쓰기를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최윤진 선생님은 ‘성미산 마을’의 사례를 들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동체 아카이브 체계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2부 ‘도큐멘테이션 전략과 일상 시공간의 기록화’에서는 다양한 일상 영역의 아카이빙을 위한 전략으로 도큐멘테이션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설문원 선생님의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에서는 아키비스트의 능동적 활동과 개입을 필요로 하는 도큐멘테이션의 의미와 사례를 제시하여 우리의 현실과 조건에 맞는 지역 기록화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권소현 선생님은 ‘강릉 단오제’라는 무형문화자원을 대상으로 기록화 방안을 제시하여 문화자원의 아카이빙에 대한 의미를 언급하였다.

현대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시민사회 영역의 아카이빙을 위한 방안으로 임진희 선생님의 「NGO 기록관리 컨설팅 방법 연구」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에서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컨설팅 사례를 중심으로 NGO기록의 의미와 특성, 컨설팅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시민사회영역 기록관리에 의미 있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공연예술 분야의 하나인 연극을 주제로 기록화 방안을 제안한 정은진 선생님의 「연극의 기록화 방법에 관한 연구」도 실려 있어 관심 있는 기록학연구자의 흥미를 더하고 있다. 2부의 마지막에는 아키비스트의 주요 관심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구술기록에 대한 고민과 실천의 확장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기억과 구술 기록화 그리고 아키비스트」 논문도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3부에는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논문을 수록하였다. 우선 박주석 선생님의 「한국 기록사진의 개념 형성과 전개」는 기록사진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수용과 인식을 설명하여 기록학 영역에서 고민하고 설정해야 할 기록사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문화예술 영역의 중요한 분야인 미술 아카이브에 대하여 정혜린 선생님은 「미술 아카이브의 미술기록관리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충실한 사례분석과 미술 아카이브 운영의 지침을 제안하였다. 또한 만화기록을 대상으로 관리 방안을 제안한 김선미 선생님의 「만화기록 관리 방안 연구」와 영화기록의 기술(description)에 대한 연구결과물인 김진성 선생님의 「영화 기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문화예술 영역의 아카이빙연구와 방법론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엿 볼 수 있다. 2부에도 언급되는 구술기록을 주제로 구술기록의 고유한 특성과 수집 방식을 제안한 조용성 선생님의 「구술기록의 수집과 아카이브 정책에 관한 연구」는 구술기록에 대한 중요성과 구술 아카이브의 설립을 위한 필수 요소인 정책을 제안하여 의미를 더하고 있다.

3. 의미와 성과

2012년 현재 다양한 일상영역의 아카이빙에 대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NGO, 문화자원’ 등의 그 사례이며 기록학 영역이 아닐지라도 ‘공동체 만들기, 네트워크, 연대’ 등의 다양한 기치를 가지고 시민들은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와 연구, 협력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만들고 또한 공유하게 만든다. 서울시의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³⁾이 서울의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나름의 성과들

을 만들어 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 “일상 아카이브의 발견”이라는 책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물이며, 기록학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단비 같은 존재로 느껴진다. 더구나 다양한 사례와 고민들을 함께 볼 수 있으며 아카이빙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연구자의 새로운 시각을 만들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간 아카이브에 대한 우리 대부분의 시각은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시도되고 있었음을 인식한다면, 일상이라는 영역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일상영역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시기를 통해서 논의와 실천과 연대가 활발해지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일상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발간된 이 책의 의미가 더 있다고 본다.

일상과 아카이브를 시작으로 공동체와 각각의 영역의 실천들과 연구 성과물, 그리고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다양한 연구사례의 흐름으로 구성된 것도 일상을 이해하고 아카이빙을 고민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최근의 연구와 성과를 많이 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으며, 이후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 속에서 풍성해지리라 생각한다.

최근 내가 경험한 일상 아카이빙 영역의 사례를 소개하며 서평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던 서울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마을 아카이브 만들기’ 사업과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서울시의 정책적인 지원도 영향을 주지만 일부 활동가들의 노력과 성과가 아닌 자생적인 공동체 만들기의 요구와 실천들이 있으며, 공동체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으로 아카이브를 설정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기록학 연구자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현재는 마을 다양한 대상과 주제, 규모 등이 다른 마을 아카이브 만들기를 위한 기

3) 서울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위탁사업으로 ‘서울시 마을 지원센터’에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록학 연구자로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기록학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연대하고 실천해야 함을 느낀다. 비단 서울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NGO영역, 지역 도큐멘테이션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대란 단순히 머리와 몸을 빌려주고 교류하는 것이 아닌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주인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곧 일상이라는 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나와 우리의 아카이브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서평을 쓰는 “일상 아카이브의 발견”은 기록학 연구자로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많은 것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책이며 기록학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준다.